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 배 향

(부산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K초등학교 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허승희(1993)에 의해 개발된 사회·정서 고립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상위 25%의 고립아동 24명(남녀 각 12명 씩)을 무선표집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무선할당하였다. 미술치료프로그램은 방과후 연구자의 교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아동에게 1주일에 두 회기씩 13회에 걸쳐 총 5단계에 의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송인섭(1996)이 제작한 자아개념 검사지와 이영선(1997)의 학교생활적응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집단의 학교생활화(KSD)도 검증도구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양적분석과 학교생활화에 대한 두 가지 수준의 질적분석이었다. 먼저 양적 분석으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및 사후 점수간의 평균차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 점수의 변화는 일원변량분석으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수 점수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질적분석으로는 실험집단 아동의 학교생활화에서 나타난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능력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을 발췌하고, 이 그림에 대하여 학교생활화 진단검사 체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의 사전·사후 값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술치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학교생활화에 대한 사전·사후 그림 비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보다 사후의 그림에서 인물상이 많이 등장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초등학교 고립아동,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신문명사회의 21C는 세계화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분출하는 시대로서 생존을 위한 기초기본능력은 물론 새로운 대안과 발상으로 자신의 삶을 용기있게 꾸려 나갈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거대화된 사회 조직은 인간 소외 현상을 가져 왔고 급기야는 초등학교까지 부적응아동과 고립아동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학교생활적응이 힘들며 자아개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립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가르치고 친구관계의 수용도를 높여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최근 미술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역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상담과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 자아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자신의 행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결단력과 실천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아동에게 있어서 또래관계를 통한 다양한 적응적 체험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한 상담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장영숙, 1998). 미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담자는 그림을 매체로 내면에 있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동시에 갈등의 재경험을 통하여 자기 통찰 및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능력과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황유경, 2001).

특히, 예술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창조와 자기표현을 위한 매개물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예술은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상징적인 수단이다. 예술활동은 놀이보다 목표지향적이며 예술은 문제를 일으키며 그림으로써 실제적인 자기상을 묘사하며 상황의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예술은 실제에 직면하게 하며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 예술은 의도적으로 상징을 만들며, 자기표현의 자발적 수단이며, 수용할 수 없는 충동을 수용할 수 있게 하며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하였다(Breams, 1993).

김동연과 이성희(1997)는 미술치료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심상의 표현으로 방어가 줄어들며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미술치료는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표현기법으로 무의식의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승화시킴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미술활동으로 인한 창조성과 에너지를 유발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 활동이 아동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정서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하고자 초등학교 고립아동들에 대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립아동들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 아동의 자아개념은 통제집단 아동의 자아개념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은 통제집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가.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K초등학교 3학년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허승희(1993)에 의해 개발된 사회·정서적 고립도 검사를 실시하여 점수가 높은 상위 25%의 아동 남녀 각 12명씩 모두 24명의 고립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고립아동을 표 1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남녀 각 6명씩 12명을 무선배치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구성(N=24)

집단	남	여	합계
실험집단	6	6	12
통제집단	6	6	12

나. 실험-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 ·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인섭(1996)이 제작한 자아개념 검사와 이영선(1997)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두 집단간 평균 차이의 유의성을 알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아개념의 4가지 수준 및 자아개념 전체($t=1.257, p=.222$),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전체($t=0.024, p=.981$)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전후검사 통제집단 실험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표 2> 실험 설계

R ₁	O ₁	X	O ₂	O ₃
R ₂	O ₄		O ₅	

R₁ : 실험집단, R₂ : 통제집단

3. 측정 도구

가. 연구 대상의 선정을 위한 선별 도구

1) 아동용 사회·정서적 고립 검사

본 연구에 사용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고립 검사는 허승희(1993)가 초등학교 아동을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총 32문항으로 정서적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 정서적 고립, 사회적 고립의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각 문항은 1에서 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의 4개 하위척도별 신뢰도의 평균은 재검사신뢰도가 .86, 반분신뢰도가 .82, 신뢰도(Cronbach α)계수가 .83이다.

나. 검사 도구

1) 자아개념 검사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초등학교 이동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송인섭(1996)이 제작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같은가' 또는 '다른가' 를 판단해서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신뢰도(Cronbach α)계수에 의한 척도별 신뢰도 계수 범위가 .66~.88이다.

2) 학교생활적응 검사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검사는 김정환(1981)의 학교 관련 태도 측정도구와 이상필(1990)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영역을 참고로 하여 이영선(1997)이 재구성한 것이다.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영역은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참여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단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이 검사의 신뢰도(Crombach α)계수는 .82 이고 재검사 신뢰도는 .89이다.

3) 학교생활화(KSD)

KSD는 학교장면에서 아동의 자기지각, 아동의 교사지각, 그리고 아동의 또래 및 또래관계 지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의 고립아동들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직전의 학교생활화(KSD) 사전 그림과 사후 그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질적 분석 방법은 이숙정(1996)의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KSD에 관한 연구' 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능력에 관해 유의미하게 설명해 준 것으로 나타난 요인(자아개념: 인물상의 자기에, 인물들의 얼굴표정, 인물들의 신체표현; 학교생활적응: 인물들간의 상호작용, 인물상의 협동성, 인물상의 방향)을 추출하여 2명의 전문가(상담심리학 박사, 미술치료전문가)에게 학교생활화(KSD)에 대한 분석진단 체계를 의뢰하여 확정하였다. 분석진단 체계는 자아개념 9 점, 학교생활적응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실험처치 프로그램 및 실험절차

가. 실험 처치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립아동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전미향의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효과’ (1997)와 황유경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2001) 등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미향의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1997)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을 초등학교 아동의 수준에 맞는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력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황유경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교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2001)에서는 프로그램의 회기가 24회기인 것을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 내용과 목표, 그리고 내용을 초등학교생에게 적합하도록 13회기로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	단계	주제	활동내용	준비물	활동
9	종결 함께 하는 나	어울리는 표정찾기	· 자신에게 어울리는 가장 행복한 표정 만들기 - 거울을 보면서 다양한 표정 지어보기 - 여러 가지 표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정 만들기 - 서로 어울리는 표정 찾아주고 이야기 나누기	· 스타킹 · 색칠사 · 천조각 · 색털실	개별 및 집단 활동
10		나에게 주는 상장	· 달라진 자신에게 주는 상장 스스로 만들기 -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장을 스스로 만들기 -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점을 찾아 발표하기 - 서로 칭찬거리 찾아 피이드백 하기 - 자신에게 주는 상장 만들기	· 그리기 · 도구 · A4용지 · 골판지 · 코팅지	개별 및 집단 활동
11		학교생활 화(KSD)	·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리기 - 학교생활 중 가장 기뻐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리고 발표하기	· A4용지 · 그리기 · 도구	개별 활동
12		마무리 (프로그램 종결)	· 프로그램 참석 후 자신의 변화 이야기 하기 - 프로그램 참가 후 자신의 생활 들여쳐 보기 - 느낌 나누기 · 자아개념검사, 학교생활적응 사후검사	· 따뜻한 · 마음과 · 관심 · 검사지	개별 활동
13		추수 지도	적응 확인 지도	· 프로그램 종결 후의 학교생활 적응 재확인 - 프로그램 종결 2주 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하기 · 자아개념검사, 학교생활적응 추수검사	· 따뜻한 마 · 음과 관심 · 검사지

나. 실험 절차

2004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13회의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아동에게 ‘고립아동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1회기에 40분씩, 매주 두 번 화요일과 금요일 방과후에 연구자의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5. 자료 처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 분석과 학교생활화의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양적 분석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추수 점수 변화는 반복측정식 일원변량분석으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수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점수간의 개별비교 검증은 Scheffé 검증으로 하였다.

나. 질적 분석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질적 분석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 아동의 KSD(학교생활화)를 사전·사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집단미술치료의 이론과 기존의 연구를 근거로 2명의 박사학위 소지자인 미술치료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실시하였다.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 아동의 KSD(학교생활화)에서 나타난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능력에 해당하는 그림을 부분 발췌하여 사전·사후 그림 점수에 대한 대응 t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 아동의 KSD(학교생활화)를 사전·사후별로 그림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분석의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Ⅲ. 결 과

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립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친 효과

고립아동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개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수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수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반복측정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자아개념 점수에 대한 시기별(사전·사후·추수) 평균값의 평균차를 개별비교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실험 ·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추수 자아개념 평균 및 표준편차(일원변량분석)

자아개념	집단	사전검사A		사후검사B		t	추수검사C		F	Scheffé
		M	SD	M	SD		M	SD		
일반적	실험	24.67	2.10	28.75	1.54	4.504***	27.25	2.49	11.800***	A, B=C
자아	통제	23.17	2.59	24.33	3.03					
학업적	실험	27.25	3.67	31.00	3.57	3.551**	30.92	4.42	3.609*	A, B=C
자아	통제	25.75	2.96	26.25	2.96					
사회적	실험	30.00	2.63	34.33	2.84	3.752***	32.25	1.48	9.845***	A, B=C
자아	통제	29.33	3.20	29.17	3.83					
정서적	실험	21.42	1.93	24.50	2.65	1.837	24.33	3.65	4.500*	A, B=C
자아	통제	21.33	3.08	22.33	3.11					
자아개념	실험	103.33	6.43	118.58	7.25	5.214***	114.75	8.95	13.022***	A, B=C
전체	통제	99.58	8.10	102.08	8.22					

*** $p < .001$ ** $p < .01$ * $p < .05$ Scheffé($p < .05$)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개념에 대한 사후점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의 세 수준(일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1$) 정서적 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837$, $p > .05$). 그러나 자아개념의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5.214$, $p < .001$).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고립아동의 자아개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

집단에서 측정시기별(사전·사후·추수)로 자아개념 점수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반복측정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아개념의 수준에서 측정시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가지 사후 자아개념(일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서적 자아, 전체 자아) 평균의 평균차를 개별비교(Scheffé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의 일반·학업·정서적·사회적 자아 등 모든 자아개념의 영역들이 사전·사후·추수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또 추수검사 결과 역시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립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친 효과

고립아동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립아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수 자아개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추수 학교생활의 변화에 대한 반복측정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점수에 대한 시기별(사전·사후·추수) 평균값의 평균차를 개별 비교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실험 · 통제 집단의 사전·사후·추수 학교생활적응 평균 및 표준편차(일원변량분석)

학교생활	사전검사A		사후검사B		<i>t</i>	추수검사C		<i>F</i>	Scheffé	
	M	SD	M	SD		M	SD			
교사-학생	실험	17.92	2.94	23.83	2.86	2.278*	23.58	2.35	18.061***	A, B=C
	통제	17.33	4.70	20.50	4.19					
교우관계	실험	17.00	3.95	23.75	2.67	2.568*	22.42	2.158	16.084***	A, B=C
	통제	16.67	4.87	20.08	4.17					
학습활동	실험	15.25	5.03	23.17	2.98	2.911**	23.42	2.27	19.736***	A, B=C
	통제	16.67	4.58	19.92	2.47					
규칙준수	실험	19.58	4.72	25.33	2.90	1.972	25.33	2.27	11.070***	A, B=C
	통제	18.42	4.94	22.17	4.75					
학교행사참여	실험	16.58	3.92	23.83	4.04	2.972**	24.83	3.30	17.143***	A, B=C
	통제	17.42	5.16	19.50	3.03					
학교생활전체	실험	86.33	10.77	119.92	11.24	4.855***	119.58	7.15	45.660***	A, B=C
	통제	86.50	21.52	102.17	5.84					

*** $p < .001$ ** $p < .01$ * $p < .05$ Scheffé($p < .0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후·추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의 네 수준(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행사참

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5$) 규칙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972, p > .05$). 그러나 학교생활적응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4.855, p < .001$).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고립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에서 측정시기별(사전·사후·추수)로 학교생활적응 점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학교생활적응 영역에서 측정시기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6가지 사후 학교생활적응(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참여, 학교생활전체) 평균의 평균차를 개별비교(Scheffé)한 결과, 실험집단의 학교-학생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생활 참여, 학교생활 전체 등 모든 학교생활적응력의 영역들이 사전·사후검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또 추수검사 결과 역시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화(KSD)의 질적 분석 결과 및 해석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의 대상은 실험집단의 고립아동들이 사전 및 사후에 그린 학교생활화였다. 학교생활화의 양적인 측정요소는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이었으며, 학교생활화의 사전·사후 그림 점수에 대한 검증은 대응 t 검증(Paired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표 6> KSD에 나타난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검증

구분	사전검사 (N=12)		사후검사 (N=12)		t	p
	M	SD	M	SD		
자아개념	3.92	2.27	6.67	1.67	-5.745	.000
학교생활적응	.92	1.16	3.25	1.22	-6.567	.0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립아동의 자아개념($t = -5.745, p < .001$), 그리고 학교생활적응($t = -6.567, p < .001$)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립아동의 자아개념 개선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들을 뒷받침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고립아동의 일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서적 자아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Naumberg가 그림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적 성장과정을 알아 볼 수 있다는 4단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정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혜, 2004).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교사와 고립아동간의 이해증진, 감정교류, 그리고 대화의 창구역할을 함으로서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고립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 아동들은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행사 참여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어 고립아동들의 학교생활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교사의 주변을 맴도는 아동, 위축된 아동, 학습부진 아동, 무력감을 느끼는 아동들에게 간접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어 학교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현장에서 상담기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해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저학년이나 부진아에게도 학교현장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치료 및 상담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립아동들의 문제점들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교사가 아동들 개개인과 면밀한 개인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아동들의 문제점이나 내적인 갈등을 쉽게 알 수 있어 아동을 이해하고 조력하는 정보자료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고 상담접근의 안정적 측면이 높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미술치료를 통한 고립아동의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상담과정(counseling process)에 대한 질적분석과 함께 다소 논의가 복잡하겠지만 그림에 대한 내용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 이후 고립아동의 남·녀간 변화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미술치료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최초로 언급한 Kerschensteiner 이후, Rubin과 Goodenough의 그림에 대한 성차에 대한 주장과 달리

Kellogg와 Naglier는 남녀간의 성차가 조금밖에 없으며, 성차라고 하면 아동들의 주제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Hagood, 2003). 본 그림에서도 남자 아이가 여자아이보다 다소 동적인 그림구조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엄밀한 측정방법을 통한 남녀간의 비교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승아(1995). **집단미술치료기법과 사례-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김갑숙·정미숙(1999). 학교 부적응 학생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6(2), 67-185.
- 김경숙(1996).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자아 존중감 및 성격특성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이성희(1997). 결손가정 아동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6(1), 207-244.
- 김순혜(2004). **현대아동상담**. 서울: 학지사.
- 송인섭(1996). **인간의 자아탐구**. 서울: 학지사.
- 이숙정(1996).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KSD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선(1997).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과 성패귀인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1998). **초등학교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KFD에 의한 가족지각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향(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외선·이영석·전미향(1996). 아동의 부적응 행동개선에 미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3(1), 83-99.
- 한국미술치료학회(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허승희(1993).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개발. **한국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제7집, 19-34.
- 황유경(2001). 학교 부적응 아동의 정서진단 척도의 개발. **동아논총** 27, 93-110.
- Hagood, M. M. (2003). The Use of the Naglieri Draw-a-Person Test of Cognitive Development: A Study with Clin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Art Therapists Working with Children. *Art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20, 67-76.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la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53-60.
- Brems, C. (1993). *A Comprehensive Guide to Child Psychotherapy*. Boston, M A : Allyn & Bacon.

An Effect of a Group Art Treatment Program on Isolated Children's Self-Concept and Adaptation to the School Life in Elementary School

Park, Bae-hyang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an effect of a group art treatment program on isolated children's self-concept and adaptation to the school life in an elementary school.

To achieve this goal, the two hypotheses were made.

Hypothesis 1.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group art treatment program will show more improvement in self-concept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2.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group art treatment program will show more improvement in the ability to adapt themselves to the school life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To test the hypotheses, the socio-emotional isolation test developed by Heo Seung-hi (1993) was carried out with 120 third-graders at K elementary school in Busan; then, 24 isolated children (12 boys and 12 girls) at the upper 25 percent level were randomly sampled and assigned to each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five-stage art treatment program as a reconstruction of the prior study to meet the goal of this study was provided to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at the researcher's classroom after school for 13 sessions, two sessions per week.

The self-concept test manufactured by Song In-seop (1996), the school life adaptation test developed by Lee Yeong-seon (1997), and the experimental group's school life drawing (KSD) were used to test an effect of the program.

For data analysis, two method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wo tests and a qualitative analysis of KSD, were us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After implementing the art treatment program with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in all areas.

This study concluded that if a group art treatment program is applied to elementary school practice, it will help isolated children improve their self-concept and ability to adapt themselves to the school life.

Key words : Group Art Treatment Program, Isolated Children, Self-Concept